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만나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현대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이야기와 또 그 시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문학평론가 김종희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볼 작품은
춘원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무정은 1917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던 시기는
서구 문물이 수용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 의식에
눈뜨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죠.

문학적 측면에서는 신소설에 이어서

근대소설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설에서 근대소설로 넘어오는

그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작품 속에 담겨있는 작가 의식이라든지,

그 시대의 이야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생활풍습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달라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의식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화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문화충격, 컬처쇼크라는 말은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룰테면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라고 하는 작품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사 수업 이야기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중세의 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가 사는 시대적 환경은 근세입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문화의 충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것을 잘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이 작품은 세계문학사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같은 작품은

당대의 저속한 이야기로 평가되어서
보카치오는 종교에서 파문이 되고

이 책은 금서가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 억눌려 있던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한 소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화충격에 관한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의 ‘무정’ 또한
이와 같은 문화충격을 감당하던

그와 같은 시기에 있었고
문학사 쪽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라는 인물,

우리가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 인물은 1892년이니까
19세기 말이죠.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했고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살 때 천자문을 깨우쳤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불행하게도
고아가 되었고

1905년에 천도교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메이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산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대한홍학보’
그리고 ‘소년’ 이런 지면에

시와 평론 그리고 소설을
발표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죠.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1915년

와세다 대학에 유학해서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단편소설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이런 작품들을 ‘청춘’ 이라고 하는
문예지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17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 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면서 이를테면
신문학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새로운 생활,
또 자녀중심론, 반봉건사상,

계몽적인 의식 고취,
이런 내용을 담고

지식층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광수의 생애는 매우
글썩이 많았습니다.

1919년 1월, 그러니까 이 해는
기미독립선언이 3월에 있게 되니까

두 달 전에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했던

2.8 독립선언서 이것을

이광수가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상해로 넘어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도우며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에서 계속 일하고

또 거기 소속으로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1921년, 그러니까 나라가 일본에

병탄이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죠.

주위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귀국해서

조선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이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보성을 상실하고 봉건적인

또는 친일행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벽’ 지에

‘민족개조론’ 같은 작품,

민족의 자기 비하를 불러왔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이런 글을 발표하고

1933년에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있다가
수양동우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산 선생과 함께 수감이 되지만

감옥에 있다가 반년 만에
병보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939년에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게
그 이태 후인 1941년이죠.

친일연설을 하면서
각지를 유세했습니다.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이죠.

광복,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로 지목이 되어서 양주 봉선사,

그리고 산흥의 농가로
전전하며 은신해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
49년에 반민법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병보석되었다가 전쟁 중에
납치, 납북되었어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원의 이와 같은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근대문학에서
또는 개화 세대를 향해서

자신이 민족의 교사라고 하는
자부심 또는 책임감으로

근대 문화, 문학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는 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쓴
이와 같은 근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관한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괄호 처리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광수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하는

그 문학의 또는 문화의 교사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 때문에
근대문학의 교사임에도

친일행적의 주인공이었다는
이 문제가 함께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만한 이 인물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만한

육당 최남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남선을 결코 그렇게

존중하는 어사를 달아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춘원 이광수가 근대문학에 기여한

공로는 공로대로

또 친일행적을 통해서 보여준

민족 배반의 오점은 오점대로

이 공과를 균형성 있게

함께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광수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광수가 남긴 근대문학의

여러 소중한 집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수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광수의 작품 세계는

어떨까요?

그 시대에 부응하는 이광수의

이와 같은 작품이란 것은

여러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무정’은,

장편소설 ‘무정’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이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때의
신문이니까

거의 일본의 정강 정책을
따라가는 신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1917년 신년호부터
6월 중순까지

126회의 연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소설의 효시란 칭호를
받게 되고 당대 진보적인 개척,

청년층의 비상한 관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봉건시대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 유행,
행위 유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이 작품에 대해서
기대하고 열광했고

심지어 매일신보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바람에 이 신문사에서
일하기가 어려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춘원의 여러 작품,

‘소년의 비애’ ‘윤광호’

또 두 번째 장편소설 ‘개척자’

이런 작품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는

이광수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또는 특히 그 시대의

선각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내다보았지만

이것을 문필로 치환해서

작품으로 남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춘원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역사 소설도 쓰곤 하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그 작품의 긴밀도나

압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더불어서 친일행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이러하면 민족의 교사라고

하는 자부심, 사명감도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작가들은 시대가 어렵거나

또는 작품이 잘 안 될 때는

대체로 역사 공간으로 후퇴하거나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광수가 쓴 ‘마의태자’

또 28년부터 29년까지 쓴 ‘단종애사’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년에서 32년까지

연재 형식으로 썼던

‘이순신’ 같은 이런 작품이 대체로

그와 같은 역사소설의 형식을

보이게 됩니다.

춘원이 항일 저항 운동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운동으로 되돌아갔지만

친일 운동으로

이른다면 변질을 하게 되었지만

춘원이 남긴 작품들 속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친일의 방향성 같은 것은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논설이나 연설 같은 데에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비판을 받는 것인데

1932년부터 이태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한

‘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농촌계몽운동을 주창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행각을 보이지만

여전히 춘원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어떤 각성의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식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물은 매우 복잡하고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개인적인 성향,
작품으로서의 성취,

이런 여러 복합성을 함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원이 가졌던 이상주의는
처음에는 고매한 것이었죠.

그러나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 이상이 후퇴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역사소설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한 시대의 지도자가,
한 시대의 사상을 이끌었던 선각자가,

이를테면 자기 민족과 자기 겨레의

앞날을 이끌고 가야할
책임으로부터 멀어졌다, 도피했다

또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책임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광복 이후에 이광수의 행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궤절에 대한 참회나
하다못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기대했지만
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춘원이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위기국면에서 일본의 군경에
당하거나 죽음을 맞게 되기보다는

대동아 전쟁에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춘원의 변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변명은 사람들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 당시 일본의 강성함, 관동군의 위용,
이런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독립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일저항시인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몇 사람들을 예로 들면

조국의 광복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정당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춘원은 시대의 행방을,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던 것이 아닌가.

설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버리는 궤절을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춘원이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를 읽는,
시대정신을 바라보는 관점,

포인트 오브 뷰(point of view)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무정’이란 작품은
네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은 외국에 유학도 하고

신문물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

수재민 돕기도 하고
음악회를 열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

이런 것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주인공 이형식을 비롯해서,

인텔리죠.

그 시기에 동경에 유학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동경 유학의

인텔리라고 하면

춘원의 생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겠죠.

거기에 김선형, 박영채

그리고 또 병욱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 여러 인물이 등장해서

함께 조선의 앞날에 대해서,

조선이 어떻게 이 시기를 헤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정'이 쓰인 시기만 해도

춘원이 친일 행각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교사라는

자부심,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민족의 각성을

도출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강박감이라고 할까

이런 가운데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에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해서 불붙기 시작하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민족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상당 부분 침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성공한 혁명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1919년에
기미독립선언, 3.1 운동이 있고,

그런데 이 일제강점은
1945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표면상으로는

3.1 운동이 실패한 민족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으로 흘러가는 민족정신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3.1 운동은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스러져버린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전문에

3.1 운동, 기미독립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정’의 발표 이후에 많은 작가가

이광수가 보여주었던
계몽의식,

이상주의적인 문학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근대문학의 흥왕이라고 할까

이런 뒤이어가는
계승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를 뒤이어서 김동인은,

김동인은 일생동안 이광수에 대한

콤플렉스라든지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이광수의 작품에서 모티브
또는 반발 효과를 가지고서

단편다운 단편을 쓰는 유희주의적인
작품세계를 일구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현진건이나

염상섭 같은 작가는

이것을 당대 사회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품을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1917년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란 작품이 있고서

비로소 근대문학에서

하나의 기원이 성립되는,

그래서 근대의 기점이란 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근대 기점 논의에서 이것을

갑오경장으로 또는 영·정조시대

여러 가지 학설로

연구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무정’을 근대문학의 기점으로

문학사를 정리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춘원의 문학작품

‘무정’을 비롯한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야기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장에 관한 것입니다.

언문일치 문장으로 구성이나
대화 장면, 묘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구시대를 탈피하는
형식적 조건을 갖추고

문장에서의 봉건적 잔재를
극복하고

3.1 운동 이후 한국소설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춘원 이광수라는 인물.

정말 민족적 차원에서 혜절을 보여준
문화적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안타깝고 아쉽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지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문학의 형식으로써

개화 세대를 향해서
교사의 모습으로 발화하고자 했던

그 춘원의 수고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친일이라는
그들에 묻어서 전혀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하는

센스 오브 프로포션
(sense of proportion)

균형 감각이 특별히 필요한
그와 같은 작가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